



DIREZIONE GENERALE OPERE DON BOSCO

Via della Pisana 1111 - 00163 Roma

Il Rettor Maggiore

관구장과 관구평의원, 준관구장과 준관구평의원들께

사랑하는 관구장과 준관구장 형제 여러분
관구, 준관구의 고무와 통치의 책임을 지닌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글을 통해 인사를
보내고 형제
적인 포용을 나눕니다. 이 편지는 공식적인 성격을 지녔으면서도 소식을 전하는
모양새를 취합
니다. 총장으로서 우리가 지닌 공식적인 기구인 총장서한을 사용하지 않은 채
관구장과 그 평의
원들과 소통하는 데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총장서한은 다른 형식의 글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동기는 우리 총평의회 회의기를 마치는 시기에 여러분들을 통해
가족에 관한, 고
무와 통치에 관한 몇가지 소식을 전체 수도회에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 자신은
물론이고 총평
의회는 이런 소통의 방식이 모든 이에게 좋게 작용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제게
유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소식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한 많은 회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여
러 언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각 관구군에서 고유한
언어로 번역은
관구군담당 총평의원 맡게 될 것입니다.) 제가 도움을 청한 언어들은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라
틴아메리카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베트남어,
폴란드어, 스로베니
아어, 우크라인어, 러시아어, 과라니어(페루 등 남미 일부 지방),
카탈로니아어(바르셀로나 지
방), 갈리시아어 (스페인 서부), 바스크어(스페인 북부) 등입니다.
동시에 총장의 고유 총장서한은 동일한 목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발행주기에 대

해서는 파스칼 차베스 신부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년 2회, 즉 6개월에 한 번씩 발행이 적당하겠
 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권고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는 아마 연 중간쯤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스트렌나를 위해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구에서의 삶의 경험
 에 비춰 볼 때 일상의 리듬이 도착하는 회람이나 문서들에 동화되는 것을 항상
 가능하게 해 주
 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행주기는 한 번의 총장서한은 연 중간에 다른 하나의 총장서한은
 연말에(전통적으로
 '스트렌나'라고 알려진 것)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총장서한의 내용이나 구조는
 현재의 그것과
 비슷하게 유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들에 집중하면서 그 항목들을
 나열하겠습니다.

- 제27차 총회의 빛으로 살펴보는 몇 가지 잔영

- 은퇴 총장 파스칼 차베스 신부님의 소임, 은퇴 부총장과 임기를 마친 전임
 총평의원들의
 소임

- 총평의회 회의와 부서들의 조정(제27차 총회 결의 11항)

- 수도회 법제사무국 담당자 임명

- 토리노 선교국 새 선교국장 임명

- 살레시오 요람지를 위한 인력 배치(제27차 총회 결의 17항)

- 관구들 지원 - 본부와 본원을 위한 도움 요청

1. 제27차 총회의 빛으로 살펴보는 몇 가지 잔영

형제 여러분, 이 편지의 앞 부분에 우리의 총회가 수도회를 위해, 우리 각자의
 관구를 위해, 그리
 고 그 곳에 속한 형제들을 위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또 의심의 여지 없이 계속
 지니게 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심장의 박동을 전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총의
 순간을 살았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 깊게 감동을 준 형제애와 친교의 순간을
 살았습니다. 우리

는 쉽게 '감상'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일상성과 매일 요구되는 과제들이 아마도 우리 모두를 덜 기발하게 하고 심지어는 더 '굳은' 사람들이 되게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체험, 형제애의 체험, 친교의 체험에 의해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체험은 우리의 수도자 삶에서 진정성으로 사는 만큼 예언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자기 관구나 준관구로 돌아가셨습니다. 몇몇 소수의 저희들만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직무를 맡기 위해 이곳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고 또 모든 형제들 혹은 새로운 것에 더 열린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였으면 좋겠다는 깊은 의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수도회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직물(織物) 안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 (vogliamo continuare a stare nella Trama di Dio)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의 베 안에서 한 오라기의 실인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서 짜고 계시는 역사의 천에 우리의 노력, 에너지, 수고, 전 삶이 메겨지도록 도우면서 말입니다. 증거의 삶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게까지 하는 우리 형제애의 예언적 가치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리의 타볼산에 도달하게 합니다. 우리는 매우 여러 번 문서에 대해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회들이 문서를 만드는 것만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총회의 목적이 살레시오 카리스마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 주님께서 돈 보스코에게 맡기신 사명(이를 우리는 '살레시오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에 충실한 우리의 여정을 영속적으로 되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제공되는 우리의 텍스트와 글을 제대로 살펴 본다면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강렬한 표현들을 당연히 발견합니다. 역시 우리 마지막 제27차 총회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느님의 직물 안에 머물고 형제애의 예언자로 살려는 의지와 필요를 완성하는 것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강렬

한 호소를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적 새로운 순간에 대한 인식을 지니며, 우리의 봉헌 생활은 이기주의와

자기지시(*autoreferenzialità*)에 반하는 외침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예수님의 동정심 어린 태도

를 지니고 다른이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의 가난과 연대의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회랑(*回廊, chiostro*)은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세계이며, 우리의 기도는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품위를 되돌려 주기 위해 손을 높이 드는 것이고 그를 위해 투신하는

활동이 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에너지를 아낄 수 없고, '우리 것들'을 위한 또는 우리 개인

적인 관심사에 갖혀 있을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우리의 앞에는 천 번 다짐된 약속된 땅에 도달

하도록 우리를 도울 출애굽이 있다. 바로 더욱 버림받는 가난한 청소년들이다. 그곳에서 살레시

오 회원으로서 우리의 타볼산을 만나게 될 것이다.”(제27차 총회 문헌, 부록 5, 훔어진 이들)

이 표현에서 얼마나 큰 힘이 느껴지는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의 타볼

산을 발견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이고 이것이야말로 오늘 그리고 항상 “돈 보스코에게 돌

아가기”일 것입니다.

총회가 끝나고 거의 3개월이 흐르는 동안 여러 신문의 기자들이 우리 수도회에 관련된 두려움

이 있느냐고 내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온전히 진솔한 마음으로, 아무런 두려움도 절

대 어떤 두려움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만한 자세에 물들었거나 겸손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함과 겸손은 우리의 표현 양식이어야 한다는 데 완전히 동의합니다. 우

리 살레시오 DNA의 제일 구성 요소라고, 우리를 유전적으로 살레시오 회원이 되게 하는 살레시

오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일컫는 것인 청소년 특히 더 가난한 청소년을 위한 우리의 사목적

열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청소년은 우리의 사목적 열정이고 우리의 타볼산이 되게 한다는 차원

에서 우리의 충실성은 보장이 되고, 충실성 안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주님의 성령께서 청소년

특히 세상에서 더 가난한 청소년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 살레시오 수도회와 살레시오 가족들

계속 원하시기에 우리 수도회에 관한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2. 소임 순명

제27차 총회가 끝나고 지내온 3개월은 여러 사안 중에서 시급하게 등장하고 있는 요청들을 살
펴보고 또 자신들의 직무를 마친 회원들, 수도회와 살레시오 가족의 수장이었던
은퇴 총장과 부
총장 그리고 모든 전임 총평의원들과 대화를 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순간들이
였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꺼이 봉헌하겠다는 태도를 갖고
진실된 형제적 대
화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증거입니다!
각기 받으신 소임 순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스칼 차베스 은퇴 총장 신부: 로마 산타르치시오 공동체로 부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가시어 지금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건강 회복을 계속 돌보실 것이며,
동시에
수도회의 평생양성을 위한 피정, 연례피정, 강의, 집필 등을 하실 것이고 살레시오
가족
과 봉헌생활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주실 것입니다.

- 아드리아노 브레골린 은퇴 부총장 신부: 이탈리아 로마 관구로 이적하였고 그곳
관구장
에 의해 (관구평의회 동의로) 피렌체 공동체의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분의
임명
에 대해서는 총평회의 승인이 두 주 전에 있었습니다.

- 북중남미관구군 담당 총평의원 에스테반 오르티스 신부: 자신의 원적 관구인
에과도르
로 이적되었습니다.

- 서유럽관구군 담당 총평의원 호세 미겔 누예스 신부: 세빌리아에 본부를 둔
스페인의 새
로운 관구 '도움이신 마리아' 관구로 이적되었습니다.

- EAO관구군 담당 총평의원 앤드류 윙 신부: 예루살렘 라티스본의 국제 신학원
공동체의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 북유럽관구군 담당 총평의원 마렉 스찬 신부: UPS의 스승 예수 공동체의 원장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3. 총평의회 회의와 부서의 조정(제27차 총회 결의 11항)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간결하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주제를 다루는 총평의회 모임의 조정을 부총장이 이끌었다고 짧게 말하겠습니다. 매일 그날과 다음날의 회의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차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총장과 함께 부총장은 다뤄야 할 사안들에 관한 연구의 리듬에 따라 다양한 식별, 자문, 임명 등등을 위한 보고서 연구하였습니다. 동시에 부총장은 각 분야의 6년 계획과 가까운 혹은 먼 장래 활동들에 대해 선결 조정의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분야담당 총평의원들과 모임을 가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제27차 총회 결의 11항의 요청에 따르면서 지역담당 총평의원들 그리고 모든 총평의원들(부문과 지역 사이에)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총장은 2014년과 2015년에 추진할 5대륙 관구들 방문일정에 관해 총평의회원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 관구를 방문할 때 필요성에 따라 부문담당 총평의원이나 지역담당 총평의원의 수행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4. 수도권 법제사무국 담당자 임명

제27차 총회 폐막 전 3일 동안 이어졌던 총평의회 첫모임에서 피에르 파우스트 프리솔리 신부(전 임 이탈리아 관구군담당 총평의원)를 우리 수도권 법제사무국 담당자로 임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명 이후 프란체스코 마라카니 신부의 가늠할 수 없는 일과 경험에 의지하면서 정보와 문서를 인계하는 잘 준비된 과정을 통해 상황들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5. 토리노 선교국의 새로운 선교국장 임명

스테파노 바놀리 형제가 토리노 선교국장의 자리에서 사퇴할 것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알려드

립니다.

저는 상황을 고려해서 그의 신청을 수락했고, 이 역할을 잘 수행하실 수 있는 다른 형제를 물색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잠피에트로 페테논 수사를 새로운 선교국장으로서

임명하였습니다. 그 수사

님은 현재 이탈리아 북동관구(베네치아)의 관구경리를 맡고 계신데 이 업무에 관한 인계가 끝

나는 대로 바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잠피에트로 수사님과 관구장

그리고 그곳 형제

들이 보여주신 관대함과 희생에 감사를 표합니다.

6. 살레시오 요람지를 위한 인력 배치 (제27차 총회 결의 17항)

저희들은 제27차 총회가 결의로 요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출발하여 매우 주의

를 기울이고 숙고하고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그 첫발자국을 놓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 명의 형제들에게 (엔리코 루파노 신부, 펠릭스 울트라 신부, 라파엘 가솔 신부 등 한 명의 이

탈리아 두 명의 스페인) 발독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2015년 가능한 최상의 능력(사목적

영성적 측면처럼 물리적으로도)을 갖추고 돈 보스코 탄생 200주년을 맞아 우리 발독코의 성지를

찾는 수많은 순례자들을 맞아들이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들의 경험을 바

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목적이고 영성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같은 것을 콜레돈보스코를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나 아니면 그곳으

로 갈 수 있는 형제들을 만나면서 실행할 방도를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이런 활동을 위해 적합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항상 쉽지도 항상 가능

하지도 않기에 발독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치로운 봉사를 수

행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 결론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을 떠올리면서 형제적인 서한을 끝맺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의

말보다 더 권위로운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제27차 총회가 알현하던 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돈 보스코 탄생 200주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에게 창립자의 카리스마를 다시 제안하기 위한 상서로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신 마리아께서는 여러분 수도회 삶에 당신의 도움을 모자르게 하신 적이 절대 없으셨으며 앞으로도 결코 부족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다운 전구가 하느님으로부터 희망하고 기대하는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보호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형제적인 큰 포옹을 드리며!

로마, 2014년 7월 15일

양헬 페르난데즈 A. SDB
총장

P. Ángel Fernández A.,SDB
Rector Mayor